

RESEARCH ARTICLE

Gandhi's Stubbornness-Satyāgraha and Durāgraha*

Park, KyumPyo¹ · Kim, Chinyoung²¹Ex-Lecturer,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²Research professor, Sogang University Richard Schaeffler Institute

간디의 고집-사뜨야그라하(Satyāgraha)와 두라그라하(durāgraha)*

박금표¹, 김진영²¹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전) 강사, ²서강대학교 리하르트세플러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Park, KyumPyo (indiahistory@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Gandhi's characteristics such as Satyāgraha(眞理把持, holding firmly to truth), stubbornness and conviction by analyzing his declaration to suspend the Non-Cooperation Movement in the 1920s, his opposition to separate electorates for Untouchables in the 1930s, and his prayer meetings for Hindu-Muslim unity in the 1940s. Gandhi's conviction, as reflected in these activitie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In the 1920s, his conviction aligned with the spirit of satyagraha. In the 1930s, regarding the political rights of Untouchables, elements of duragraha began to emerge alongside satyagraha, showing a mix of both stances. By the 1940s, his focus on alleviating Hindu-Muslim tensions resulted in a practical loss of balance between conviction and stubbornness.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philosophical evaluation of Gandhi in this study may be an arbitrary diagnosis of his stubborn belief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rediscovering the footsteps of a saint who sought truth and contemplated what was best for India.

Keywords: Satyāgraha, Stubbornness, Durāgraha, Ambedkar.

OPEN ACCESS

Citation: Park, KyumPyo & Kim, Chinyoung. Gandhi's Stubbornness-Satyāgraha and Durāgraha.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2, 99-110.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16>

Received: November 26, 2024

Revised: December 19, 2024

Accepted: December 31, 2024

Copyright: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본 연구 목적은 1920년대 비협조 운동¹⁾ 중지, 1930년대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권 반대, 1940년대 힌두-무슬림 단합 기도회 등에 나타난 사뜨야그라하(Satyāgraha)와 두라그라하두라그라하(durāgraha)의 성격, 신념과 고집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간디에 관한 연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국내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기준으로 학술논문 3,000편 이상, 학위논문 1,200편 이상, 단행본 3,200편 이상이 검색될 정도이다.²⁾ 그러나 간디의 사상, 행위, 발언 등에 나타나는 그의 결단력의 성격을 연대별로 분석한 연구는 흔치 않다.

간디는 1893년에 변호사로 소송을 의뢰받아 남아프리카에 가면서 차별을 목격하고, 22년 동안 압제와 차별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뜨야그라하라는 자신만의 진리 추구 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수립했다. 1915년에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농민을 위한 운동, 독립운동, 독립 후 폭력을 중단시키는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현실로 드러냈다. 간디의 활동 특히 정치 활동에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간디가 자신의 신념을 굽힌 적은 없다. 간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으며, 자기 평화와 평화 확립 등을 위한 단식도 적지 않게 했다. 이러한 간디의 활동은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간디의 이러한 활동과 행위를 신념이나 결단력이라는 용어로 통칭할 수 있는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념에 근거한 결단력이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동질의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디의 결단력이 사뜨야그라하인지 두라그라하인지 또는 신념인지 고집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간디가 제시한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 용어를 검토하고, 신념 혹은 고집으로 해석되는 용어의 용례를 『바가바드 기따(Bhagavad-Gītā, 이하 Gītā)』를 비롯한 고전 문헌에서 고찰하여 간디의 사뜨야그라하의 신념과 그것이 발현한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1922년에 발생한 짜우리 짜우라(Chauri Chaura) 사건과 사뜨야그라하 중지 선언을 중심으로 간디 고집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불가촉천민의 분리선거권과 관련된 간디의 고집과 그 결과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힌두-무슬림 단합을 위한 기도회에서 드러난 고집의 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간디가 드러난 고집과 결과의 특성에 대한 필자들의 시론적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1차 자료는 『간디 전집(The Collected Works of Mahatma Gandhi Electronic Book 98 volumes, 이하 CWMG)』, 간디와 함께 활동한 네루의 자서전인 『자유를 향하여(Toward freedom)』, 『기따』, 『암베드카르 선집(Dr. Babasaheb Ambedkar: Writings and Speeches, 이하 BAWS)』, 런던 원탁회의 기록물 등이다. 2차 자료로는 간디와 관련된 연구서와 논문 및 간디 철학과 관련 연구 등을 활용한다. 2차 자료의 경우 국내 번역본이 있더라도 원래 저자의 자료를 사용한다. 번역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간디의 신념과 그 발현을 달리 이해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디 전집』 98권과 『암베드카르의 선집』 17권은 같은 연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본문 출전에 저자, 출판 연도, 해당 페이지로 표기하는 경우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에 간디와 암베드카르의 경우 본문의 출전으로, 책 약어표와 권 그리고 페이지 표시(예: CWMG, 12: 257; BAWS, 17: 157-158)로 표기함을 밝힌다.

II. 사뜨야그라하에 대한 고집

사뜨야그라하는 진리(satya)와 파지(把持, āgraha), 즉 진리를 손에 쥐어 지켜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진리파지’로 해석된다. 간디철학의 핵심으로 규정되는 이 개념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진리를 지속시키는 힘을 강조한다. 그래서 진리파지에서 ‘파지’는 주로 신념적 측면으로 해석되지만 그 안에는 고집의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고집은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려는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어대사전에서 신념(信念)은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며, 고집(固執)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말한다.

실제로 간디는 사뜨야그라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집’의 부정적 의미를 갖는 두라그라하(durāgraha)를 사용해 사뜨야그라하의 본질을 설명한다. 사뜨야그라하에 비해 두라그라하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간디가 1917년 11월 연설에서 두라그라하에 대해 실제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라는 두 가지가 있

* 2024년 타이치학회 학술세미나 “수행, 철학, 역사로 풀어보는 고집” 발표논문임.

1) 일반적으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비협조 운동이라 하고, 정부의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을 불복종 운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고한 자료와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불복종 운동으로 표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불복종 혹은 비협조 용어를 그들이 표기한 그대로 사용하고, 본 연구자들의 견해를 서술할 때에는 구분하여 서술한다.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

으며, 사뜨야그라하는 ‘신의 방식’이고, 두라그라하는 ‘악마의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규정하면서 두라그라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이 그[두라그라하]³⁾ 예입니다. 왜 단순히 힘으로 제압했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대의는 옳고, 다른 나라의 대의는 그르다고 여겨져야 합니까? 강자는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약자의 대의는 단순히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강자가 옳다는 것도 그러한 힘겨루기에서 성공한 데서 추론할 수 없습니다. 힘을 휘두르는 자는 사용 수단에 대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르마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 두라그라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참을성을 잃고, 적이라 칭해지는 대상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증오가 증가합니다. 패배한 측은 복수를 맹세하고 그저 때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복수의 정신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내려옵니다. 인도가 이 두라그라하 정신에 결코 우위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 두라그라하는 기를 찼는 사람의 소처럼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지 움직임일 뿐 진보는 아닙니다. 사뜨야그라히(satyagrahi, 사뜨야그라하 행위자)는 항상 전진합니다(CWMG, 16: 126-128).

간디가 설명하는 사뜨야그라하는 다르마(dharma)를 따르는 진보하는 움직임이라면, 두라그라하는 다르마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가 원을 그리며 도는 무의미한 행위처럼 단지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구분한다. 무엇보다 두라그라하는 전쟁, 약자에 대한 힘의 폭력, 복수와 증오에 근거한 행위를 촉발하는 다르마와 전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으로 구분한다. 사전적으로도 두라그라하는 어리석은 고집(foolish obstinacy), 완고함(headstrongness), 완강함(pertinacity) 등의 뜻을 갖는데, 힌두 고전 『바가바따 뿌라나』(Bhāgavata Purāṇa) 3.5.43에서 다음과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구하지 않은 신체와 가족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와 ‘내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에 깊이(ūḍha) 고집스레 탐착한다(durāgrahāṇām). 오, 존자시여! 우리는 당신의 연꽃의 발치에 경의를 표합니다(Prabhupada, 1987: 208).

여기서 말하는 두라그라하는 고집스러운 집착으로서 다르마가 아닌 신체, 가족, 아집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 즉 비진리에 대한 뿌리 깊은 탐착을 말한다. 인용문의 두라그라하를 벤페이 사전에서는 ‘비난받을 만한 고집(blameable pertinacity)’으로 번역하는데 (Benfey, 1866: 71),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견해나 태도의 근거가 진리인 다르마에 근거한 것인가에 따라 신념과 고집,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로 판별된다는 것이다.

두라그라하가 ‘비난받을 만한 고집’이라고 해석되는 사상적 근거는 ‘나’라는 주관성과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기반이 되어 만든 거짓 세상을 바로 진실(진리)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 해석은 인도의 육파철학의 하나인 상키야(Sāṃkhya)학파의 이원론철학에 근거한다. 상키야는 순수정신(Puruṣa)과 근본물질(Prakṛti)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세계를 설명하는데, 특히 근본물질에서 지성(buddhi, 혹은 mahat)이 전개되고, 지성에서 아집(我執)을 뜻하는 아함까라(ahamkāra)가, 아함까라에서 마음(manas) 등으로 세계가 개전되었다는 전개설(展開說, pariṇāma)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아함까라인 아집은 진리를 가리고 거짓세계를 창조하면서 진리 그 자체인 순수정신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도록 만든다. 상키야철학에 근거해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를 구분한다면, 순수정신에 기반한 진리의 세계에 대한 신념이 사뜨야그라하이므로, 근본물질이라는 물질성에 기반한 거짓 세계에 대한 고집이 두라그라하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진리(satya)’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asatya)’에 대한 파지(把持, āgraha)의 두 가지 양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두라그라하는 비진리파지(asatyāgraha)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의 대조에서 두라그라하의 특성으로 꼽히는 ‘고집’은 힌두 고전, 특히 『기따』에 나타난 스타브다(stabdhā)와 드리다(dr̥ḍha)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 중에서 스타브다의 경우는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기따』 16.17과 18.28에서의 두 용례가 모두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 ① 고집이 세고(stabdhā) 자아도취에 빠져 재산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에 굴복한 채, 그들은 규정을 어기고 명목뿐인 거짓된 제식을 제식이라고 바친다.
- ② 절제되지 않고 지속하고 고집이 세고(stabdhā) 위선적이고 부정직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매사에) 지체되는 행위자를 암성(暗性, tamas)의 행위자라 부른다.

①은 부덕한 이들의 제식이 남들의 눈을 의식해 호화롭고 경건해 보이도록 의례를 치르지만, 경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허울뿐인

3) 이곳을 비롯한 인용문의 []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들이 삽입한 부분이다.

제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의 스파르다(ṣaṁdā)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규정이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고집을 말한다. 이는 주석서에서 ‘거만한 자’로 해석되는데, 후대 베단파학자인 상카라(Saṅkara)는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자(apraṇatāman)’, 라마누자(Ramanuja)는 ‘충만하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라고 풀이한다(임근동, 2021: 339). 상카라와 라마누자 같은 베단파 철학자들의 주석은 세부적인 별도의 주해가 필요하지만, 해당 단어만으로도 자만과 거만에 근거한 고집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②는 상키야학파에서 말하는 3가지 근본 성질(guṇa)인 선성(善性, sattva), 동성(動性, rajas), 암성(暗性, tamas) 가운데 암성의 특성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암성은 게으르면서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성질을 갖는다. 이는 상카라가 ‘뻣뻣한 자’로 풀이하면서, 마치 막대기처럼 그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석된다(임근동, 2021: 372). 스파르다의 두 용례 모두 자만심을 전제로 한 고집이 센 상태를 표현하는데, 주로 잘못된 지식을 완고하게 지속하는 고집스러운 성격을 뜻한다.

『기따』에서 고집을 나타내는 또 다른 원어로는 드리다가 있다. 드리다의 용례는 긍정적 용례와 부정적 용례 두 가지 모두 나타나는데, 우선 부정적 의미로 『기따』(6.34)에서 사용된다.⁴⁾

왜냐하면 마음(manas)은 동요하고(chañchala), 불안하고(pramāthi), 힘이 세고(balavad), 고집이 세기(driḍha) 때문입니다. 오, 크리슈나여, 저는 그것(마음)이 바람(vāyu)과 같아서 제어하기(nigraha) 매우 어렵다(su-duṣhkaram)고 생각합니다.

위 인용문은 『기따』의 주인공인 아르주나(Arjuna)가 대화자인 크리슈나(Kṛṣṇa) 신에게 마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아르주나는 마음은 동요, 불안, 강력함, 고집이라는 속성을 갖는 것이기에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마음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람에 비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집은 해롭거나 악한 생각을 움켜쥐면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며 지성(buddhi)을 실망시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⁵⁾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제거해야 할 마음의 요소였던 드라다는 『기따』 12.13-14와 9.14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① 모든 존재에 대해 증오심이 없는 자. 실로 다정하고 자비로우며 ‘나의 것’이 없고(nirmama) ‘나’가 없으며(nirahankāra), 고락을 평등하게 생각하며(sama-duḥkha-sukha) 인내하는 자, 항상 만족하는 요가행자, 자신을 제어하고 ‘확신에 찬 결심’(driḍha-niśchaya)으로, 나에게 마음(意, manas)과 지성[인식, buddhi]을 바치고 나에게 귀의한 자는 내게 있어 사랑스러운 자라오.

② 언제나 나를 찬양하면서 ‘신념에 찬 서약’(driḍha-vratā)을 지키며, 노력하며, 신에로써 나를 공경하고 항상 제어된(상태로) 머문다오.

긍정적 고집으로서의 드리다는 주로 결심/결의(niśchaya)나 서약/서계(vratā) 앞에서 그 의지가 결연하며 굳건하다는 신념의 형용사처럼 쓰인다. ①의 밑줄 부분은 ‘결정이 확고한 자’로 풀이되는데, 상카라의 경우 ‘아프만의 본질에 대한 결정이 확고한 자’로, 라마누자는 ‘아프만과 관련된 결정이 확고한 자’라는 주석을 제시한다(임근동, 2021: 271). 베단파 철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한다면, 드리다는 진리(아프만)에 대한 올바르고 선한 결정을 유지하려는 고집이라는 포괄적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기따』의 용례로 고집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긍정적 태도의 경우 고집보다는 신념의 의미로 해석되며, 진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에 저항하여 비진리를 고수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고집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리를 대하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에 의해 고집은 신념적 고집과 부정적 고집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 불교에서도 진리에 대해 거세고 무례하게 저항하는 것을 부정적 고집으로 표현한다. 하임(Heim)은 팔리어의 개념어 중에서 고치기 어려운 센 고집을 두와삿사따(dovaccassatā)라고 정의한다(Heim, 2022: 116). 이 용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저항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상태를 지칭하는데, 경전에서는 “(진리의 교설에) 반대하고, 적대적이며, 무례하고, 무시하고, 사려깊지 않으며, 예의가 없다”라고 기술된다(Rhys Davids, 1900: 344). 불교는 진리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중시하는데, 이를 『양굿다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 「Dutiyasuvannakāra-sutta」(3.253-254)의 금세공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금 안에 든 불순물, 자갈, 합금 등이 제거되고 진정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진리에 부정적으로 저항하는 고집을 비판한다.

이처럼 고집은 아만과 아집을 바탕으로 한 거짓의 부정적 양상과 진리에 대한 결심과 서약을 고수하는 긍정적 신념의 두 가지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고집은 신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념의 경우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기

4) 『기따』의 번역은 길희성, 2010; 임승택, 2018; Radhakrishnan, 1963; Zaehner, 1973 등의 번역을 참조한 필자의 번역이다. 임근동의 번역은 베단파 학자의 주석이 병기되므로 본문에서 다루었다.

5) 마음의 부정적 속성을 고집으로 정의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맛지마 니까야』(Majjhima-Nikāya)의 「바투빠마 숫따(Vatthūpama Sutta)」에서 16종의 수번뇌(隨煩惱, upakilesa) 가운데 11번째로 고집(thambha)을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고집은 아라한도(阿羅漢道, arahatta-magga)에서 제거할 수 있는 어려운 번뇌로 제시된다.

따』에서 신념을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슈랏다(śraddhā)를 꼽을 수 있다(Bhawuk, 2020: 131).⁶⁾ 슈랏다는 신념, 신뢰, 신앙 등으로 해석되면서 신의 선물, 신, 경전, 타자에 대한 헌신의 감정, 최고의 미덕으로 풀이되는 방대한 개념이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기따』에서는 슈랏다가 진리(satya)의 다양한 표현인 제식(yajña), 고행(tapas), 보시(dāna), 행위(karma) 등을 설명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Bhawuk, 2020: 122; 124).

이처럼 신념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고집은 자신의 주장이 진리와 비진리를 근거로 할 경우 신념과 고집의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간디가 사뜨야그라하를 설명하면서 두라그라하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현실세계에서 신념과 고집이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실제적 한계성에 기반한다. 그래서 간디는 두라그라하의 악한 목적성과 고집스러운 태도를 사뜨야그라하의 진리성과 신념적 태도와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간디가 진리를 추구하고 지향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실행한 사뜨야그라하의 경우 신념적 태도를 넘어서 고집의 양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뜨야그라하 운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I. 짜우리 짜우라 사건과 사뜨야그라하 중지 선언

본 장에서는 간디가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로 실시한 사뜨야그라하에서, 1922년에 발생한 짜우리 짜우라 사건을 중심으로 간디의 초기 활동에 드러난 고집의 특성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간디가 인도로 돌아와서 전국적으로 비협조 사뜨야그라하를 실행한 것은 로울라트 법(Rowlatt Act) 반대 투쟁이었다. 인도 민족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을 지원한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정부가 인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에 막을 내린 몇 개월 후인 1919년 3월 18일에, 인도의 영국 제국의회(Imperial Legislative Council)에서 로울라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재판 절차 없이 ‘의심’만으로도 개인을 투옥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이다. 자치의 확대를 기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은 이 법안에 분노했다. 이때 간디가 로울라트 법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면에 등장했다. 간디의 투쟁은 로울라트 법이 발효되는 1919년 4월 6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한 것이다. 일종의 국민 총파업이지만 ‘금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비협조 운동으로 인도 내의 모든 행정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인도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영국 정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19년 4월에 시작한 이 비협조 운동은 192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로울라트 법을 적용하여 상당수의 비협조 운동 지도자들을 구속했다. 지도자 대부분이 투옥되었지만, 반영 투쟁의 열기와 민족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대중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1922년 2월 4일 짜우리 짜우라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의 웃따르쁘라데시(Uttar Pradesh)의 짜우리 짜우라에서 비협조 운동 행진을 하던 군중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쏘았고, 이에 격노한 군중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자 경찰들은 경찰서 안으로 후퇴했다. 이에 군중들이 경찰서에 불을 질러 경찰 20여 명이 사망했다. 비협조 운동을 지도하던 간디는 이 사건을 접하자, ‘비협조 운동 중지’ 선언을 위한 국민회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2월 12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바르도리(Bardoli)를 비롯하여 계획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즉시 중단하며, 불복종의 일환으로 납부를 거부했던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하고, 불복종의 중단은 폭력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CWMG, 26: 138-140).

간디의 사뜨야그라하 운동은 진리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며, 스스로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상대방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폭력(ahimsā)이 사뜨야그라하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사뜨야그라하 운동 중에 경찰들이 사망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뜨야그라하 정신을 위배한 행위이므로, 간디의 신념에 근거한다면 운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간디는 국민회의 결의안이 통과된 1922년 2월 12일부터 5일 동안 참회의 단식을 했는데, 단식 중인 2월 15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CWMG, 26: 169-170) 다음과 같이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질문: 마하트마님, 당신은 중지[선언] 때문에 당신의 비폭력 원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없나요?

간디: 전혀 없습니다.

질문: 스와라지의 조기 달성을 기대하며 감옥에 간 15,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만으로도 적어도 그들을 석방시킬 어떤 형태의 저항이라도 당신이 찾아내기를 촉구하지 않을까요?

6) Bhawuk은 Monier-William과 Apte의 사전적 의미를 “신념, 믿음, 신뢰, 확신, 신뢰성, 충실함, 소원, 욕망, 기꺼이, 기쁘게, 호기심, 순수함, 존경, 경의, 차분함, 평정심, 동의, 찬성, 승인 및 환영” 등으로 정리하면서 이 용어의 단일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또한 이 개념으로 『기따』의 용례를 분석하면서 śraddhā가 지혜(jñāna)의 선행 조건이며, 해탈(mokṣa)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

간디: 그 문제는 고락뿌르 비극[짜우리 짜우라 사건]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국민회의는 당분간 구속된 자들을 회생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락뿌르에서 일어난 대중의 악행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질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무기한 중단시킴으로써, 열광하던 사람들이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디: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열광적인 사람들이 통제 불능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회의 기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의 중지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비협조 운동을 중지한 것에 대한 간디의 신념은 이처럼 확고했지만, 국민회의 지도부는 간디의 결정을 수긍하지 못했다. 간디와 더불어 독립운동의 쌍두마차로 불린 네루는 당시 감옥에서 국민회의 결의안을 접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서전에 기술했다(Nehru, 1941: 80-82).

짜우리 짜우라 사건 이후 우리 운동이 갑자기 중단되자, 간디를 제외한, 국민회의의 주요 지도자 모두가 분개했던 것 같다. 당시 감옥에 있던 내 아버지는 훨씬 더 화를 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욱 동요했다. 우리의 치솟은 희망은 무너졌고(……), 외딴 지역 마을의 흥분한 농민 무리가 그동안 계속된 자유를 위한 우리의 민족 투쟁을 끝낼 수 있는가? 이것이 산발적인 폭력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라면, 비폭력 투쟁의 철학과 기술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찰의 극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우리 운동에 몰래 들어와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수많은 선동가, 밀고자 등은 어떻게 하나? 이것이 그 기능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비폭력 저항 방법은 항상 실패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회의 지도부도 수긍할 수 없는 ‘비협조 운동 중지’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대중이 쉽게 따랐을 리가 없다. 이때 간디의 단식이 시작되었다. 간디의 단식은 ‘참회의 단식’, 즉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짜우리 짜우라에서 경찰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참회하는 단식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간디가 단식함으로써 국민회의 지도부는 물론 대중들도 중지 선언을 받아들였고, 비협조 운동은 중단되었다.

신념을 지키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간디가 폭력사태 발생 후 운동 중지를 선언한 것은 자신의 비폭력 신념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중지 선언 이후 단식함으로써 중지를 완수한 것은 네루를 비롯한 국민회의 지도부와 대중의 생각에 반해 간디가 고집을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간디의 고집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와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간디의 비폭력과 철학을 연구한 본두란트(Joan V. Bondurant)는 간디가 행한 다섯 번의 사뜨야그라하를 심층 분석하면서 로울라트법 반대 비협조 운동은 실패한 사뜨야그라하이지만, 사뜨야그라하 절차와 규칙이 대부분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진정한 간디식 사뜨야그라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Bondurant, 1958: 82-83). 다시 말해서 간디가 주장한 사뜨야그라하 정신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간디의 신념 혹은 고집의 특성은 그 대상과 방식을 전제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짜우리 짜우라 사건으로 운동 중지를 선언한 것은, 그 대상이 압제자나 식민 정부가 아니라 대중의 인식 전환 즉 비폭력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이었다. 간디의 사뜨야그라하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개심(改心)이다. 그 개심을 위해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는 것이다. 간디가 사뜨야그라하를 시작한 것은 식민 정부의 부당한 법 즉 로울라트 법에 반대하는 비폭력, 비협조 운동이다. 그러나 비협조 운동 중에 폭력이 발생하자 즉시 운동을 중지시킨 것은, 자신의 신념인 비폭력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사뜨야그라하의 핵심이 비폭력 원칙임으로 대중에게 전하여, 대중의 마음에서 폭력 사용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때 간디가 비폭력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중에게 확고히 심는 개심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1930년 소금행진(Salt March, 1930년 3월 12일-4월 6일)에서 드러났다.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이 있었음에도 소금행진 참여자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어 간디의 소금행진이 비폭력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비협조 운동 시작, 폭력 발생, 운동 중지 선언, 참회의 단식 순서로 진행되는 과정에 드러난 간디의 행동은 『기마』 12.13-14와 9.14의 고집스러운 결심(dṛiḍha-niśchaya), 고집스럽게 서약을 지키는(dṛiḍha-vrata)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간디의 고집은 사뜨야그라하의 실천 도구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IV.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권 저지

인도의 불가촉천민은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에 위치하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계층이다.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는 1927년부터 불가촉천민의 물 사용권과 사원 출입권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리

한 권리 투쟁만으로는 불가촉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09년 인도 통치법에서 소수집단인 무슬림의 분리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919년 인도 통치법에서는 시크교도 역시 소수집단으로 분리선거권을 인정받았다. 10년마다 개정하기로 한 인도 통치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1929년에 개정될 통치법이 1935년에서야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소수집단의 정치권리에 대한 논쟁이 가장 심각했는데, 무슬림과 시크교도에 이어 불가촉천민도 차별받는 소수집단으로서 분리선거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통치법 개정에 관한 논쟁이 확대되자 영국 정부는 런던에서 인도의 모든 집단의 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원탁회의(Round Table Conference)를 세 차례 개최했다. 제1차 원탁회의에는 국민회의 대표는 물론 간디도 참석하지 않았다. 소금행진으로 국민회의 주요인물이 모두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간디-어윈 협정(Gandhi-Irwin Pact)으로 간디가 석방되고 제2차 원탁회의에 간디가 국민회의 대표로 참석했다. 이미 제1차 원탁회의에서 암베드카르가 주장하는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권이 논의되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제2차 원탁회의에 간디가 참석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1931년 10월 1일, 소수 위원회가 개최되자, 간디는 제1차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회를 요청했고, 10월 8일 속개된 회의에서 조정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Indian Round Table Conference, 1932: 1395).

불가촉천민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들[불가촉천민]이 투표했다면 내가 1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등록부와 인구 조사에서 불가촉천민을 별도의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크교도는 영원히 시크교로 남을 수 있고, 무함마드교도도 마찬가지로, 유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촉천민은 영원히 불가촉천민으로 남을까요? 저는 힌두교가 사라지는 것이 불가촉천민이 계속 존재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 암베드카르 박사는 그가 겪은 고난과 혹독한 경험으로 인해 현재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 불가촉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도를 모르고, 오늘날 인도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것에 저항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해도 제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간디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소수집단 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자고 주장했으며, 이후 소수집단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1932년 8월 17일에 <커뮤널 재정(Communal Award)>을 발표하여 불가촉천민의 분리선거권을 인정했다. 제2차 원탁회의 참석 후 귀국한 직후인 1932년 1월 4일에 체포되어, 예라와다(Yeravada) 감옥에 있던 간디는 <커뮤널 재정> 발표 이튿날인 8월 18일에, 영국의 총리이며 소수집단 위원회 의장인 맥도널드(Ramsay MacDonald)에게 ‘정부 발표를 보고 밤새 숙고했는데, 이 결정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금이나 탄산을 섞은 물 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할 것이다. 영국이 자발적이든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든 결정을 철회 혹은 변경할 때까지 죽음을 불사하는 단식(fast unto death)을 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CWMG, 56: 347).

그러나 영국 정부는 직접 변경하지 않고, ‘인도 내의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간디의 단식이 시작되자, 모든 시선은 불가촉천민 분리선거를 주장한 암베드카르에게 쏠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베드카르는 “간디의 생명은 간디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내가 그 순간 가졌던 것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딜레마를 가졌던 사람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나는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나에게서는 인간의 도리로 간디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영국이 부여한 불가촉천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나는 결국 인간의 도리에 따라 간디가 만족할 수준으로 <커뮤널 재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여 간디의 생명을 구했다”라고(BAWS, 5: 341) 토로했다.

지금까지 간디가 처음으로 ‘죽음을 불사한 단식’을 선언한 배경과 추이를 검토했다. 이제 불가촉천민의 분리선거권 거부를 위한 간디의 발언과 단식의 특성을 분석해보자.

단식이라는 무기를 가볍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한 쉽게 폭력의 기미를 보인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런 기술자라고 주장한다. 나는 라즈코트(Rajkot)⁷⁾와 그 통치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내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나의 단식이 압력으로 해석된다면, 그러한 도덕적 압력은 관련된 모두에게서 환영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CWMG, 75: 136).

이것은 1939년 3월 3일에 간디가 단식할 것이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언론에서 간디와 접촉했고, 이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이다. 요컨대 간디는 도덕적 압력이 도덕적 개심을 일으킨다면 정당화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식 행위에 대한

7) 라즈코트에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1939년 3월 3일에 단식을 시작했으며 총독의 개입으로 7일에 단식을 끝냈다.

연구자들의 분석은 좀 다르다. 아이어(Raghavan Iyer)는 성인(saint)에게 적용될 종교적 기준을 대중 행동 정치의 장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뜨야그라하는 필연적으로 강압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낫다 하더라도 신체적 강압을 수반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어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첫째, 아힘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진심으로 삼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성인 제외)에게 그의 의도가 전적으로 순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그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강요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Iyer, 1973: 331-333). 한편으로 본두란트는 상징적 폭력의 한계 연구에서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두 경우 모두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당한 정책이지만, 두라그라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압력을 사용하고 힘으로 상대를 항복시키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압력이 사용되지만 두라그라하는, 상대가 틀렸다는 선입견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이 취한 입장의 오류나 부도덕한 성격을 보여주고, 자신이 옳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인 입지로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직접적이고 단순하며, 정해진 목표의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Bondurant, 1967: 100-101)고 분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가촉천민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간디의 발언과 행위를 검토해 보자. 제2차 원탁회의에서 간디는 ①암베드카르가 고난과 혹독한 경험으로 인해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②불가촉천민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인도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③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커뮤널 재정>에서 불가촉천민의 분리선거권을 인정하자 간디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때까지 죽음을 불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위의 발언 가운데 ①과 ②는 상대가 틀렸다는 선입견을 드러낸 것이고, ③과 ④는 극단적 표현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발언에서, 간디가 악마의 방식이라고 말한 두라그라하와 다를 바 없는 특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간디가 불가촉천민의 분리선거권을 철회시킨 이후 장기간 불가촉천민 처우 개선과 힌두의 불가촉천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는 점과 불가촉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힌두의 참회’라는 개심을 목표로 했다는 점 등은 사뜨야그라하 특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뜨야그라하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을 탐색하는 과정 역시 목적의 일부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간디가 ‘힌두의 참회’ 즉 불가촉천민 차별에 대한 힌두의 개심을 목표로 한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 간디가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하며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권을 저지하는 동안에는 많은 힌두가 불가촉천민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등으로 개심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딱 그때뿐이었으며, 이후 불가촉천민에 대한 힌두의 차별은 오히려 더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⁸⁾

압제자나 대중을 상대로 한 사뜨야그라하와는 달리 죽음을 불사한 간디의 단식은 불가촉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암베드카르의 순응을 유도하는 압력이 엄청난 무게로 작용했기 때문에 신념보다는 고집의 부정적 용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짜우리 짜우라 사건으로 인한 사뜨야그라하 중지 선언과 비교하면, 간디의 엄청난 신념과 고집이 드러난 공통점이 있으나, 중지 선언에 반대한 사람들은 간디를 지지하는 국민회의 지도부였고, 간디가 개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중이었던 것과는 달리 분리선거권 저지는 이에 반대 혹은 대립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간디의 반대편 사람들이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간디의 신념과 고집으로 직접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대상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힌두로부터 불가촉천민 분리를 반대하는 간디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측면에서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뜨야그라하로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암베드카르는 틀렸다’는 선입견으로 압박을 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베르누프의 두라그라하에 대한 해석인 ‘비난받을 만한 고집’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촉천민 문제와 관련된 간디의 활동과 고집 자체는 사뜨야그라하였지만 그 결과는 두라그라하의 양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힌두-무슬림 단합을 위한 기도회

간디의 기도회는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남아프리카의 파닉스(Phoenix) 농장에 도착한 이후 시작되었으며(Gandhi, 1957: 43), 인도에 돌아와서도 매일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서는 당시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기도 하고, 주요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194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 분위기가 짙어질 무렵 간디의 기도회는 기존 기도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기도회에서 낭송되던 것들을 설명한 기록(CWMG, 56: 142-193)에 따르면 아래 인용문과 같이 주로 힌두 성전이였다.

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금표, 2015: 82-84 참조 요망.

우리는 아침 기도에서 아슈람 바자나발리(Ashram Bhajanavali: 찬송집)에 인쇄된 솔로까(운문 구절)를 낭송하고 찬가(bhajan) 하나를 부르고, 그다음 람둔(Ramdhun: 람신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을 하고, 기따빠트(Gitapath: 바가바드 기따의 낭송)를 한다. 저녁에는 바가바드 기따 2장의 마지막 17개 솔로까를 낭송하고 1개의 바잔을 부르고, 람둔을 하며 신성한 경전의 일정 부분을 읽는다.

그런데 간디는 1947년 4월 1일 힌두 사원에서 개최된 기도회에서 자신의 조카인 마누 간디(Manu Gandhi)로 하여금 꾸란(Quran, 이슬람교 성전) 구절을 낭송하게 했다. 그러자 힌두 청년이 단상으로 뛰어와 “당신은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는 무슬림 기도를 허용하지 않는 힌두 사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이에 간디는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시오. 당신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게 놔두시오. 이곳은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CWMG, 94: 212). 이튿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발생하면 기도회를 하지 않겠다는 간디의 예고에 “기도를 하고 싶다면 당신이 사람들을 데리고 힌두 사원에서 나가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CWMG, 94: 218).

간디의 기도회에서 꾸란을 낭송함으로써 소동이 계속되었으나⁹⁾, 간디는 기도회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디의 기도회에서 꾸란을 낭송한 것은 분리 독립을 막고 힌두-무슬림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지만, 결국 힌두-무슬림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인도-파키스탄은 분리 독립했다. 분리 독립과 힌두-무슬림 화합을 위해 간디가 힌두 사원에서 꾸란을 낭송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간디는 1925년 1월, 사뜨야그라하는 비협조(non-cooperation), 인내(tolerance), 고통 감내(suffering)가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CWMG, 30: 63). 이에 근거한다면 설득과 포용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즉 힌두 사원에서 꾸란 낭송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위 기도회에서 간디의 이러한 노력이나 인내심은 보이지 않는다. 살라(Salla, M. E.)가 개심(改心), 순응, 강압이 사뜨야그라하 운동의 철학적 요소이며, 개심이 핵심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개심보다는 강압과 순응이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Salla, 1993: 57) 간디가 힌두 사원에서 꾸란 낭송을 하는 것도 일종의 강압이며,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는 것도 강압에 해당한다. 여기서 간디를 따르는 사람들은 꾸란 낭송 상황을 수용한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간디의 강압에 저항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회에서의 간디의 발언을 사뜨야그라하 원칙을 고수한 고집으로 볼 수 있을까. 독립 이후 간디가 독선적이며 무슬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극우 힌두인 고드세(Nathuram Godse)는 간디를 공개적으로 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는 재판에서 간디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간디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의 재판관이었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지만, 누구도 그 운동의 전술을 알 수가 없었으며, 간디만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중지할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뜨야그라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무오류성을 표명했으며, 간디는 자신의 대의에 대한 재판장이자 배심원이었는데, 이런 유치한 광기와 고집에 아주 엄격한 금욕적인 삶, 부지런함, 고상한 성격이 보태져서 간디는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였다고 진술했다(Godse, N. V. and Godse, G. V. 2015: 59),

물론 간디를 암살한 극우 성향의 고드세의 진술로 간디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디가 사뜨야그라하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의논을 하거나 조정을 거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에 대하여 판누(Pannu, Mohinder Singh)가 간디의 사뜨야그라하 운동은 준비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나타났고, 신의 도움만을 구할 뿐, 실제적 정치 투쟁이나 정치적 상황 분석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간디는 운동(movement)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신성한 빛 또는 신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으며, 절대적이고 불변의 수수께끼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비평한 것도(Pannu, 2006: 498)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루는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적이고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런 문제에 투하면 신을 들먹이는 데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했으며(Nehru, 1941: 237), 간디가 결정하고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를 저버리겠는가? 그와 결별하겠는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겠는가?”라고(Nehru 1941: 193)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그[간디]에게 어떤 고집스러움(hardness)이 스며들어, 그가 가졌던 융통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Nehru, 1941: 370) 그의 자서전에서 기술했다. 이처럼 주변 인물이나 연구자들의 비평을 참조한다면, 간디가 초기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신념보다는 강한 고집을 드러냈고, 이에 대해 국민회의 지도부와 이를 지켜본 반대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버거(Burger A.J.)가 증거 없이 믿음을 정당화하려는 욕망 때문에 여전히 증거 없는 것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줄 뿐이며, 비합리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와 같이(Burger, 2008: 100), 힌두 사원에서 꾸란을 낭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임에도 간디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간디의 이러한 행위들을 욕망 혹은 비합리적이라는 단어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인도의 종파 갈등, 분단, 폭동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고집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고

9) 간디의 기도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박금표 (2015), pp. 411-412 참조 요망

집인 ‘결단력’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바가바따 뿌라나』의 ‘고집스레 집착한다(ūḍha-durāgrahānā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뜨야그라하에 위배되는 악과 아집에 근거한 두라그라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요컨대 사뜨야그라하의 일환이었으나 분리 독립을 막으려는 자신의 신념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고집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디의 진리에 대한 신념과 결단력이 과연 사뜨야그라하 정신에 걸맞은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1920년대 비협조 운동 중지, 1930년대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권 저지, 1940년대 힌두-무슬림 단합 기도회 등을 중심으로 고집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먼저 사뜨야그라하의 진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두라그라하의 대조개념을 살펴보면 뿌라나문헌에서 정의한 두라그라하의 부정적 고집의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힌두교 고전텍스트인 『기따』에서 고집으로 쓰이는 산스크리트어인 스파브다의 부정적 실례, 드리다의 부정적, 긍정적 실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고집의 긍정적 양상의 경우 신념과 거의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신념을 나타내는 슈랏다의 경우 『기따』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개념의 통합적 양상으로 풀이되면서 진리를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음을 지시한다. 고전 텍스트가 제시하는 고집과 신념의 의미가 간디의 시대적 사상을 완전히 투영할 수는 없지만 그의 철학에 바탕이 되는 『기따』에서의 고집과 신념의 텍스트적 맥락은, 무엇보다 간디가 사용한 두 가지 개념인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19년 4월에 시작된 로올라트 법 반대 사뜨야그라하로 민족주의, 반영 투쟁의 열기가 높아졌을 때, 1922년 2월에 짜우리 짜우라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비협조 운동을 중단시킨 간디의 활동은 대중들에게 비폭력 원칙을 확고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개심을 목표로 한 사뜨야그라하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2년에 불가촉천민의 정치 권리와 관련된 간디의 행위 자체는 사뜨야그라하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두라그라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힌두로부터 불가촉천민의 분리를 막으려는 간디의 확고한 신념과 불가촉천민을 위한 활동은 사뜨야그라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암베드카르와 불가촉천민에게 가해진 압박은 두라그라하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47년 4월부터 힌두 사원에서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꾸란을 낭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비록 힌두-무슬림 단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엄격히 보자면 사뜨야그라하의 절차를 외면한 것이다. 힌두 사원에서 꾸란을 낭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임에도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는 고집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간디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힌두교도들에게 사원을 나가라고 하거나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면, 간디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간디의 행위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뜨야그라하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간디의 활동에 드러난 신념을, 1920년대에는 사뜨야그라하 정신에 합당한 고집으로, 1930년대 불가촉천민의 정치권리와 관련해서는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가 혼용되면서 두라그라하의 측면도 표출된 고집으로, 1940년대에는 힌두-무슬림 갈등 완화에 집착하여 실질적으로 신념과 고집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시론적 분류와 평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간디가 진리와 신념에 일관성을 보인 인물이라는 큰 흐름에 갇혀 있기보다는 시론적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본 연구자들의 시도에 근거가 된 연구도 있다. 간디 사상가인 디와카르(Diwakar)는 사뜨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를 구분하면서 때때로 간디의 사뜨야그라하의 범주에 그가 두라그라하라고 부른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Diwakar, 1969: 30). 실제로 이 두 가지 전략은 외형적으로 너무나 유사하고, 무엇보다 사회운동에서 진리, 선, 순수와 같은 본질과 이를 따르는 이들의 선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간디가 사뜨야그라하를 지향하고 두라그라하를 경계했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양상이 완벽히 사뜨야그라하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아드만’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Mahatma) 간디는 인도 독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인도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간디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선과 철학적 평가는 그의 고집스러운 신념에 대한 임의적 진단일 수 있으나 진리를 추구하고 인도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한 시대의 성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간디 사상을 대표하는 사뜨야그라하에 대해 간디 스스로도 너무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고귀한 정신이기에 직접적 행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또한 두라그라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것인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인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 폭력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마다 폭력의 정의와 범주가 변하듯이, 두라그라하에서 허용할 수 있는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재해석이 요구되며 주제와 관련된 파생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간디는 인도인들에게 산적한 어려움은 마치 히말라야와 같다고 말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간디에게 가장 난제였던 불가촉천민과 이슬람

의 문제는, 진리라는 성스러운 이념이 세속적인 가장 높은 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필연적으로 표출되는 시대적 절망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리가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높은 수준의 목적에 도전하는 또 다른 사쓰야그라하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비협조 운동 중지, 1930년대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권 저지, 1940년대 힌두-무슬림 단합 기도회 등을 분석하여 간디의 사쓰야그라하, 신념, 고집 등의 특성을 고찰했다. 먼저 사쓰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의 대조개념을 살펴보고 뿌라나문헌에서 정의한 두라그라하의 부정적 고집의 양상을 검토했다. 고전 텍스트가 제시하는 고집과 신념의 의미가 간디의 시대적 사상을 완전히 투영할 수는 없지만, 그의 철학에 바탕이 되는 『기따』에서의 고집과 신념의 텍스트적 맥락은, 사쓰야그라하와 두라그라하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22년 2월에 짜우리 짜우라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비협조 운동을 중단시킨 간디의 활동은 대중들에게 비폭력 원칙을 확고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개심을 목표로 한 사쓰야그라하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2년 불가촉천민의 정치 권리와 관련된 간디의 행위 자체는 사쓰야그라하로 볼 수 있지만, 그 고집의 결과는 두라그라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47년 4월부터 힌두 사원에서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꾸란을 낭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비록 힌두-무슬림 단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엄격히 보자면 사쓰야그라하의 절차를 외면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대한 아뜨만’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Mahatma) 간디는 인도 독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인도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의 간디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선과 철학적 평가는 그의 고집스러운 신념에 대한 임의적 진단일 수 있으나 진리를 추구하고 인도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한 시대의 성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간디, 사쓰야그라하, 고집, 두라그라하, 암베드카르

참고문헌

- 길희성(2010). 바가바드기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금표(2015). 간디와 맞선 사람들, 서울: 그린비출판사.
- 임근동(2021). 바가바드기타, 서울: 사문난적.
- 임승택(2018). 바가바드기타, 서울: 경서원.
- Ambedkar, B. R. (2014). Dr. Babasaheb Ambedkar: Writings and Speeches(BAWS), Vol. 1-17. Bombay: Education Department Government of Maharashtra.
- Benfey, T. (1866).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London: Longman Green and Co..
- Bhawuk, D. (2020). Śraddhā: Construct Definition from the Bhagavad-Gītā.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32(1), 122-137.
- Bondurant, Joan V. (1958). Conquest of Violence; the Gandhian Philosophy of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ndurant, Joan V. (1967). Satyagraha versus Duragraha: The Limits of symbolic Violence. In G. Ramachandran & T. K. Mahadevan(Eds.). Gandhi, His Relevance for Our Times, 99-112, New Delhi: Gandhi Peace Foundation.
- Burger A. J. (2008). An Examination of ‘The Will to Believe’. In Clifford, William Kingdon, William James, A. J. Burger, The Ethics of Belief, 71-107, California: CreateSpace.
- Diwakar, R. R. (1969). Saga of Satyagraha, New Delhi: Gandhi Peace Foundation.
- Gandhi M. K. (1999). The Collected Works of Mahatma Gandhi Electronic Book 98 volumes(CWMG), New Delhi: Publications Division Government of India.
- Gandhi, Prabhudas (1957). My Childhood with Gandhiji, Ahmedabad: Navajivan Pub. House.

- Godse, Nathuram Vinayak, Godse, Gopal Vinayak (2015). Why I Assassinated Mahatma Gandhi?, Delhi: Surya Bharti Parkashan.
- Heim, Maria (2022). Words for the Heart: A Treasury of Emotions from Classical India,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dian Round Table Conference (1932). Indian Round Table Conference (Second Session). Calcutta: Government of India.
- Iyer, Raghavan (1973). The Moral and Political Thought of Mahatma Gandhi,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Nehru, Jawaharlal (1941). Toward Freedom; the Autobiography of Jawaharlal Nehru, New York: John Day Co.
- Pannu, Mohinder Singh (2006). Partners of British Rule : Liberators or Collaborators?, New Delhi: Allied Publishers.
- Prabhupada, A. C. Bhaktivedanta Swami (1987). Śrīmad-Bhāgavatam: Bhāgavata Purāṇa Third Canto Part 1, New York: Bhaktivedanta Book Trust.
- Radhakrishnan, R. (1963). The Bhagavadgita, New York: George Allen & Unwin Ltd, 1963.
- Rhys Davids, C. A. F. (1900), A Buddhist Manual of Psychological Ethics of the Fourth Century B.C.,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 Salla, M. E. (1993). Satyagraha in Mahatma Gandhi's Political Philosophy. Peace Research, 25(1), 39-62.
- Zaehner, R.C. (1973). The Bhagavad Gītā: with a Commentary Based on the Original Sourc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한국학술정보, <<https://www.riss.kr>>.